



## ‘총알투’ 이범석 네가 그림다

지난해 150km 강속구 앞세워 7승 올리며 스타 반열에 올시즌 어깨 통증 고전...수술여부 기다리며 근력 훈련

지난해 KIA 타이거즈의 원투펀치로 맹활약했던 이범석과 이범석이 부상으로 마운드를 비우고 있다. 어깨 근육이 뭉치며 2군에 내려갔던 이범석은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캐치볼을 하면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측어깨 통증으로 재활중인 ‘총알투’ 이범석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팬들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지난 시즌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앞세워 혜성처럼 등장한 이범석은 지난해 7승을 올리며 스타탄생을 알렸다.

지난해 7월4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는 아웃 카운트 하나가 부족해 노히트노런을 놓치는 등 범상치 않은 실력을 과시했지만 어깨 통증으로 고전하던 이범석은 결국 부상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미야자키 전지훈련지에서도 재활과 웨이트에 초점을 맞추며 개막을 준비했던 이범석은 선발대신 불펜에서 시즌을 맞이했다. 이후 상대가 온전치 않은 만큼 2군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린 뒤 선발에 합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5월5일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처음 선발로 출격했지만 3과3분의 2이닝동안 4피안타(1홈런) 5실점으로 물러났다. 5월12일 대전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는 3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패전투수가 됐다. 5월17일 SK와의 원정경기에서는 2이닝동안 호투했지만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자신해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우측어깨 회전근개 또 문제였다. 재활에는 2~3주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통증이 계속되면서 복귀를 향한 이범석의 발걸음이 더뎠고 있다. 현재 이범석은 수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병원엔 촬영 필름을 보내 정확한 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다행히 수술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소견이 나오더라도 지난해부터 이어온 어깨 부상이라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어깨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와일드한 투구폼도 문제다. 이런 이범석을 지켜보는 조범현 감독의 마음은 착잡하다. 조 감독은 “투수에게 어깨 수술은 치명적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너무 빨리 마운드로 불러 들였다면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전지훈련 당시 조범현 감독은 이범석의 복귀시점을 5월 중순경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별 문제가 없다는 진단과 함께 본인 의지도 확고해 예상보다 복귀가 빨라졌었다. 어깨근력강화 운동을 하면서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범석. 그의 복귀를 향한 팬들의 염원이 깊어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상국 복귀

KBO 총재 특별보좌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에 내정됐다던 정부의 승인 거부로 지난달 초 자진 사퇴했던 이상국(57)씨가 총재 특별보좌역으로 돌아왔다. 이상국 특보는 1일부터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 출근해 프로야구 현안 파악에 나섰다. KBO는 조만간 직제 개편이 끝나는 대로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유영구 KBO 총재는 2011년 말까지 자신과 손발을 맞출 실무책임자로 4월30일 이 특보를 사무총장으로 지명했으나 KBO 임원에 관한 승인권력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5일 이력저지 사유로 승인을 거부했고 이 특보는 결국 사흘 뒤 스스로 물러났다. 이상국 전 사무총장이 총재 특보를 맡기는 1998년 6월 당시 박용우 전 총재의 특보로 KBO에 첫발을 내디딘 데 이어 두 번째다. /연합뉴스

### KBO 2만호 홈런 팀 맞히기 행사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09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 CJ인터넷과 함께 프로야구 통산 2만호 홈런팀 맞히기 행사를 실시한다. 2만호 홈런을 기록하는 팀을 맞힌 야구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미니노트북(1명), T볼 세트(2명), 야구연습넷(4명), 나이키 글러브(2명) 등 경품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는 1일부터 2만호 홈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되며 야구사랑 캠페인 사이트인 야구가 좋아(www.lovebaseball.co.kr) 홈페이지에서 야구팬으로 등록된 뒤 응모할 수 있다. /연합뉴스



경주마 해변질주

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한국마사회 경주마들이 기수를 태우고 길이 1km의 해변경주로를 질주하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경주대회에는 경주마 90마리가 출전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올해 처음으로 해변경주대회를 관광상품화 했으며 마상무예와 승마체험행사도 마련했다. /연합뉴스

## 윌리엄스 자매 4강

웬블던 테니스대회 女단식

서리나 윌리엄스(2위·미국)가 웬블던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준결승에 올랐다. 윌리엄스는 30일(한국시간) 영국 웬블던 올림플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8일째 여자단식 8강전에서 빅토리아 아자렌카(8위·벨라루스)에 2-0(6-2 6-3)으로 완승을 거뒀다. 윌리엄스는 먼저 4강에 진출한 뒤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3위·미국)를 의식이라도 한 듯 아자렌카를 매섭게 몰아붙여 1세트를 26분만에 끝냈다. 2세트에는 서브게임을 내주며 잠시 2-3으로 밀리기도 했지만 내리 4게임을 따내며 손쉽게 경기를 마쳤다. 윌리엄스는 프란체스카 시아보네(43위·이탈리아)를 2-0(6-2 6-2)으로 꺾고 올라온 엘레나 데멘티에바(4위·러시아)와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한편 이날 오전 8강 경기에서는 디나라 사피나(1위·러시아)와 비너스 윌리엄스가 준결승에 올랐다. 메이저대회 4강 대진이 모두 톱시드로 짜인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 “잭슨 음악 들으면 항상 행복”

우즈, 팜 황제 죽음 애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26일(이하 한국시간) 사망한 ‘팜의 황제’ 마이클 잭슨에 대해 추모의 뜻을 밝혔다. 우즈는 1일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콩그레스셔널 골프장(파70·7천255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내셔널 공식 기자회견에서 “아마 여기 모인 모두는 마이클 잭슨의 팬일 것”이라며 “우리 세대는 그의 음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음악을 들으면 항상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엔터테이너는 잭슨이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우즈는 “그의 뒤를 이은 거의 모든 예술인은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즈는 이날 인터뷰에서 또 다른 유명 인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4월 백악관을 방문해 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을 만났던 우즈는 “그때 이 대회에 오바마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아마 워낙 일이 많아 직접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가 열리는 콩그레스셔널 골프장은



워싱턴DC 인근이다. 또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우즈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페더러와는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는다”고 밝힌 우즈는 “이번 대회에 나도 우승하고 싶지만 그보다도 페더러가 윈블던에서 15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차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미국)에 대해서는 “큰 형님(big brother)”이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나타냈다. 총상금 600만 달러가 걸린 이 대회를 주최하는 우즈는 무릎 부상 복귀 후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된다. 우즈는 US오픈 챔피언 루카스 클로버, 찰리 호프먼(이상 미국)과 한 조로 1.2라운드를 치른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앤서니 김(24·나이지리아)은 데이비스 러브 3세, 짐 퓨리(이상 미국)와 한 조로 뒤편이다. /연합뉴스

## “AT&T 타이틀 방어 자신”

앤서니 김, 손가락 부상 완쾌



재미교포 앤서니 김(24·나이지리아)이 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콩그레스셔널 골프장(파70·7천255야드)에서 시작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내셔널(총상금 600만달러) 2년 연속 우승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앤서니 김은 1일 열린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왼쪽 엄지손가락 부상이 다 나았다. US오픈부터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지난주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는 마무리가 나쁘긴 했지만 꽤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시즌 개막전이었던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 공동 2위 이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앤서니 김은 US오픈 공동 16위로 반전의 계기를 잡은 데 이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는 마지막 2개 홀 연속 보기로 어렵게 톱10 진입에 실패했지만 공동 11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대회 주최자인 타이거 우즈(미국)가 무릎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우승을 차지했던 앤서니 김은 올해 우즈의 출전을 반기며 “최고의 선수와 상대할 때

는 언제나 첫 홀부터 긴장감을 느끼기 마련”이라면 “그러나 나는 우즈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출전한 모든 선수를 경쟁 상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 엄지손가락 부상 때문에 클럽을 쥐는 데 힘을 주기 어려웠다”는 앤서니 김은 “듣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페이드 샷을 칠 수 없어 자신감도 함께 잃었다”고 설명했다. 시즌 초반 부진을 메이지대회인 US오픈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한 앤서니 김은 7월 브리티시오픈에 대한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다. 앤서니 김은 “지난해 브리티시오픈에 출전했었는데 내 스타일과 잘 맞는 대회라는 느낌이 들었다. 올해도 좋은 내용의 경기를 하고 싶다”면서 “최근 2주간의 좋은 느낌을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가겠다”고 타이틀 방어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